

한국의 순교 성인 | 이남규 루카, 620x310cm, 레드케임 기법, 1987년, 서초동성당

입당 송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
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 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
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

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
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ㄴ-39

복음환호송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
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
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이형전 루카 신부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부관장

| 죽어도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오랜 습관을 버리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787년 경기도 광주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머리가 좋고 유능하였지만, 자제력이 부족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른 살에 결혼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방탕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천주교 신자에게 교리를 전해 들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젊은 시절 방탕하셨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본받기로 결심하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홀로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좀처럼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동생을 입교시키면서 그의 집은 천주교인들을 위한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1839년 체포된 어느 예비 신자의 남편이 밀고하여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그의 아내 성 권희 바르바라, 그리고 17세 된 딸 성 이 아가타와 어린 아들 두 명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성인은 혹독한 심문을 받으면서도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의 신앙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느님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졸들은 성인의 딸인 이 아가타에게 그 부모가 이미 배교하여 석방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배교를 강요하였으나 이 아가타

는 “제 부모가 배교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간에, 저희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동생 성 이광렬 요한을 포함하여 한집안에서 네 명의 순교자가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순교 정신을 본받자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순교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로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평소의 모든 언행이 하느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거나 사랑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통회 기도에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였다고 고백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가 언제 하느님을 배반하는 언행을 하게 되는지 성찰하면서 순교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당신들은 얼마나 큰 희망을 걸었기에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던 말지요? 내겐 그런 용기란 어렵도 없다. 참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그 용기를 어찌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순교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면 그 행실이 생명과 조금은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남규 글 중 발췌)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 사명

저는 세례명이 '클라우디아'인 가톨릭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클클쌤'이라는 별명으로 가장 많이 불러주십니다. 예전에 교구 문화홍보국과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제작한 유튜브 방송 '클라우디아의 클래식 뮤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제목을 줄여서 '클클뮤직'이라 불렀고 저는 '클클쌤'이 되었답니다. 요즘은 교회 밖에서도 '클클쌤'으로 종종 불립니다. 저도 이렇게 불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인지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 세례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닙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친구는 매주 명동성당에서 주일 미사에 음악 봉헌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 친구와 점심 식사 약속을 했고, 명동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미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성당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소리에 이끌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성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당 출입구 가까이 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는 미사 중 봉헌 직후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벅찬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격한 감정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명동성당에 주일미사를 드리러 나갔

고, 곧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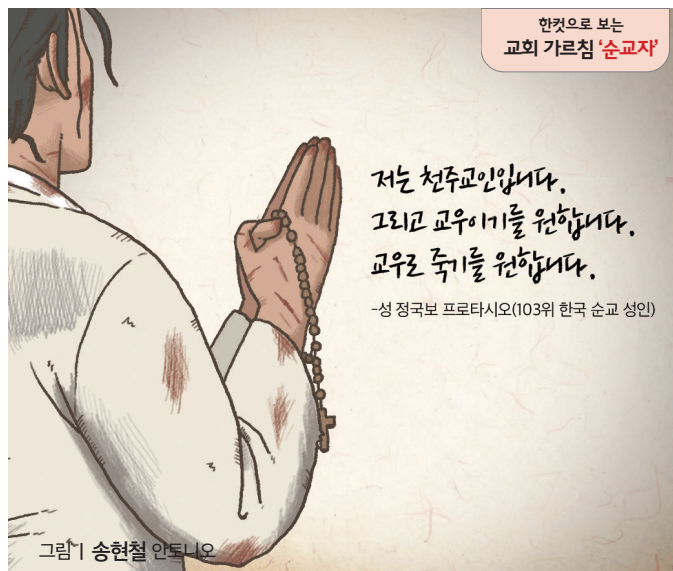
저는 현재 무대에 오르는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다양한 강연장에서 강의하는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달려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귀중한 талан트가 신앙 안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몇 배의 기쁨이고 행복이니까요.

성당에서 미사 중 영성체 후 묵상 연주나 음악 피정 등으로 연주를 하고 나면 "자매님! 묵상 중에 자매님 바이올린 연주 듣고 눈물이 났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귀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 바이올린 연주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선물하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어떤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해 가야겠습니다.



김수연 클라우디아
바이올리니스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이 신앙고백이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믿을 교리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좀 더 진실한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백의 내용을 이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거룩하신 분’인 것만이 아니라 거룩함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하느님과 관련 있는 집, 물건, 장소, 등등에 대하여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성전, 성물, 성소, 성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탈출 19,6; 신명 7,6 참조)으로서, 다른 백성들과 구분되는 동시에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처신할 의무가 있는 백성이며, 한 분이요 유일한 하느님만을 섬길 의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신약에 와서 거룩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거

룩하신 분, (마르 1,24; 루카 1,35) 성령으로 도유되신 분이므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 같은 한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2코린 9,1; 9,12 참조)라고 불립니다. 한 마디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룩함이란 하느님과 맺는 관계라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개개인에서 출발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교회는 흠없이 거룩하다고 믿어진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홀로 거룩하시다’고 칭송받으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에페 5,25-26 참조),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다.”(교회헌장 39항)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한 마디로 교회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께서 당신을 바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신부이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람 안에서 실현하시면서 교회를 살게 하시고, 일치시키고 젊어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 교회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거룩함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서 '우정일기'

서울 한복판의 신비가를 그리며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가 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신학자 칼 라너는 또 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신비와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하느님 체험의 본질이며, 이것 없이 외적인 제도와 형식, ‘소시민적인’ 자기만족의 방편으로서의 종교 생활만이 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라너가 말하듯, 일상과 신비, 기도와 삶,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과제이며, 이는 결국 신비가로 초대되었음을 뜻합니다.

‘신비가’란 말을 들으면 흔히 오상(五傷)의 비오 신부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처럼 특별하게 하느님의 신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고 그 우정으로 사람들을 초대한 ‘신비가’도 많습니다. 에지드 반 브루크호벤(1933-1967)도 그런 사람입니다.

에지드는 벨기에 출신으로 브뤼셀의 공장에 들어가 노동 사제로 살다가 34살에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예수회원입니다. 그는 10대에 하느님과 친밀함에 빠져들어 예수회원이 되고 한때는 봉쇄수도회인 카르투스오회로 이적도 고려했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느님과 나누는 우정에 응답해 가며 노동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여정을 담은 일기를 꾸준히 썼는데 그의 사후에 《우정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일기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을 감당할 힘이 없는 자는 법 안으로 피신한다.”(1959/9/27) “사도직이란 가장 깊은 우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 우정은 이런 하느님 나라 사랑의 메신저이다.”(1960/1/23) 친분이 생기자, 아랍 출신의 15살 소년 노동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담배 필요하면 얘기해요. … 나 아저씨 집에 … 살고 싶다.”(1967/9/12) 그는 점차 그가 살던 브뤼셀을 ‘불타는 떨기나무’와 비교합니다. “혹시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와 브뤼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단연코 브뤼셀을 택할 것입니다.”(1966/3/13) “브뤼셀은 하느님 현존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이다.”(1967/8/10) 신비가의 말입니다.

1960년대 교회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전후로 수에넨스 추기경 같은 지도자, 샤르댕이나 콩가르, 라너 같은 신학자, 또는 예수회의 개혁을 이끌었던 아루페 신부 등 여러 거장이 교회의 쇄신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은 에지드와 깊이 사귀고 있었고, 이 청년은 브뤼셀 한구석 공장에서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과 우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정치와 문화와 군사의 중요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을 때 변방 갈릴래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제자들과 친밀하게 우정을 나누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뿌연 하늘 아래 약삭빠른 사람들이 숨 가쁘게 살아가고, 피상적으로 ‘매일의 틀에 박힌 시시한 삶’을 살기 쉬운 바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며 젊은 영혼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계시는 어머니 (Stabat Mater)



골고타(성 플로리아성당, 독일 코블렌츠), 14세기 후반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9월의 유럽 거리에는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를 연주한다는 음악회 포스터가 즐비합니다. 팔레스트리나, 페르골레지, 로시니, 드보르자크, 풀랑크, 펜데레츠키, 젠킨스 등 다양한 작곡가들이 발표했던 작품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는 아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계시는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은 예언자 시메온의 예언(루카 2,34-35)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신하심(마태 2,13-15) 성전에 남아 있던 예수를 찾아 사흘 동안 헤매심(루카 2,42-52)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루카 23,26-3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루카 23,44-49)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루카 23,53)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심(루카 23,53)입니다. 1727년 교황 베네딕토 13세(1724-1730년)께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9월 15일)에 부속가(Sequentia)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를 미사 전례에 첨가하면서 현재 전례의 4개 공식 부속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바로 전날인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현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상징이며 생명의 나무이심이 드러나며, 그 다음날 고통의 성모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께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념합니다.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는 미사 전례에서 부속가로서뿐만 아니라 시간 전례에서도 찬미가로 불립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토디의 자코포네(Jacopone da Todi, +1306)의 작시로 알려진 이 기도문은 총 20연으로 구성됩니다. 1연부터 8연까지는 성모님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고, 9연부터 20연까지는 성모님의 고통에 우리도 참여함으로써 천국 영광의 은총을 누리도록 간구합니다.

“

아들 예수 높이달린 십자결에 성모께서

비통하게 우시네.(1연)

앓고 설은 슬픔 고통 성모성심 칼에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2연) ...

기진하여 버려진채 죽어가는 아들 보고

애처로이 우시네.(8연)

사랑의샘 동정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울게 하소서.(9연) ...

이몸죽어 제영혼이 천국영광 주 예수님

만나뵈게 하소서.(20연)

”

특히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라고 노래하는 11연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구절입니다. 17세기 바로크 초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산체스(G.F.Sances, +1679)의 작품 ‘마돈나의 눈물’(Pianto della Madonna)은 바로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의 기도문을 노래합니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인 통주저음(Basso continuo)이 라(La)부터 하향하는 5개의 반음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성모님의 고통을 묘사하고, 즉흥으로 연주되는 화성과 선율은 기도문을 더욱 빛나게 노래합니다.



스타바트 마테르 작곡:
조반니 펠리체 산체스,
1636년 노래:
펠리프 자루스키



홍보위원회가 전하는
WYD 특집

WYD 세계청년대회 후일담

7월 WYD 안내서 | 8월 WYD 현장 스케치 | 9월 WYD 후일담

홍보위원회 언론홍보팀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공식 누리집

강렬했던 리스본의 태양 아래서 진행된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여정이 마무리된 지도 벌써 40여 일째, 우리는 이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와있습니다.

서울주보 WYD 특집면 마지막 이야기, ‘WYD 후일담’에서는 앞선 두 지면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담아봤습니다.

Q. WYD는 ‘가톨릭 신자’인 ‘청년’만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WYD는 종교·국가·인종·장애·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WYD는 청소년·청년이 주축이 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본 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WYD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WYD 기간 자원봉사자들은 600곳 이상의 요양원·병원·장애인 지원센터·종교 치료센터·교도소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방문해 팔찌를 채워드리고 있는 리스본 대회 자원봉사자 (WYD LISBON 2023 제공)

Q.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숙박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A. WYD 기간 기본적인 숙박 형태는 바로 ‘홈스테이’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홈스테이를 통해 환대를 경험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리스본 대회에서는 홈스테이 가정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가정(Caring Families)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본당과 교회 내 교육·피정센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역시 순례자들의 숙소 또는 교리교육 장소로 활용합니다.



한국어 교리교육이 진행된 리스본 ‘목주기도의 파티마 성모 성당(Our Lady of the Rosary of Fatima)’에 모인 한국 순례단의 모습

식사의 경우 순례자들이 등록한 패키지에 따라 바우처와 밀키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실제로 WYD 기간 리스본 곳곳에서 ‘순례자 메뉴’가 있음을 나타내는, WYD 로고가 붙어있는 식당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4년,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차기 개최지로 선정된 교구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WYD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WYD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은 WYD가 온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받아야 하고, 또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청년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8월2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WYD는 단순히 일회성 메가이벤트가 아닌, ‘청소년·청년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WYD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과 진정한 환대와 친교를 나누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주세요!

오늘(9월 17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3년 9월 19일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37세)
- 1980년 9월 20일 이문근 요한 신부(62세)
- 2001년 9월 18일 임충신 마티아 신부(94세)
- 2002년 9월 22일 박고빈 시메온 신부(67세)
- 2003년 9월 18일 임세빈 요셉 신부(90세)

9월은 '현미현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현금으로 환산하여 9월 17일까지 각 본당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의: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 휴무 안내

추석연휴로 상설고해소 휴무입니다

때: 9월28일(목)~10월1일(일) / 문의: 02)774-1784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12월6일~1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김문희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0월 2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정희(민정) 루시아, 노진철 디모테오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2023~2024 청소년 성소계발과

최영업 신부님 사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 및 일반신자 / 분량: A4 2장 이상
마감: 2024년 3월17일(일)까지 / 시상: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20만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 (www.clak.or.kr) 참조 / 문의: 02)777-2013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3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① 신문, 출판 ② 영화, TV ③ 라디오, 인터넷 ④ 교구, 수도회 출판작
2022년 10월16일~2023년 10월15일 발표작품
접수: 10월15일까지 우편, 이메일(mssc@cbck.or.kr)로 접수 / 시상식: 12월6일(수)
문의: 02)460-7626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www.cbck.or.kr) 참조

문화홍보국 '2023 가을 문화학교'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1)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도심 속 반나절 피정	9월22일(금) 15시~18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건축, 성경)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한글서예로 성경 말씀 쓰기	10월5일~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에그리다 성가연주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21시
수어로 드리는 기도	10월10일~10월3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청년' 향주삼덕	10월11일~11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2)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일)~25일(월)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7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발표: 9월말 개별 통보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갤러리1898 추석연휴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때: 9월22일(금)~10월3일(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영성심리특강, 바이올린, 해금, 뮤지컬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생명위원회

1)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원봉사 수혜자 신청

대상: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 및 미성년 임신도 전원 / 금액: 매월 50만 원
수혜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
신청기간: 8월17일 이후 수시 접수
신청방법: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확인 / 문의: 02)727-2366

2)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13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부부, 개인), 자연주기법을 전하고 싶은 분들 / 모집마감: 10월5일(목)
때: 10월12일~12월14일 매주(목) 20시~21시30분(10주)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2023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내용: 변화된 양육 태도, 놀이 지원, 훈육 방법, 칭찬 방법, 말씀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신앙 전수법 등 /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선착순 마감) / 문의: 02)727-2385, 2386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과목당 5만원
신청기간: 과목1 9월22일(금)까지, 과목2 10월31일(화)까지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과목1 유아발달이해	10월16일 · 10월23일 · 10월30일 · 11월6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과목2 신앙전수법	11월13일 · 11월20일 · 11월27일 · 12월4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봉당 갖기’ 미사)

때, 곳: 1385차 미사 9월1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봉당: 서울대교구 사리원본당, 정봉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봉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9월22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9월愛 동행' 순교자성월을 달는 미사

때, 곳: 9월24일(일) 15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주교 및 교구 사제단 / 안내: '순례길 걷고, 기뻐하기!' 스템프를 완성한 순례자여권을 미사 당일 제출하시면 축복장을 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10월12일(목)까지 순교자현양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일괄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문의: 02)2269-041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1) 제47회 가톨릭 에코포럼

내용: 발제 1 "생명의 토대, 흙"(안철환 대표, 전통농업연구소) 발제 2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흙"(황종렬 박사,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 주제: 생명의 토대 '흙'
대상: 관심 있는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때, 곳: 9월20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77 우리농

2) 제54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분들과 후원회원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곳: 9월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5지구 10월 찬양 피정
강사: 남상근 신부(공덕동성당) / 010-9927-2898 김영자
때, 곳: 10월25일(수) 10시~17시, 시흥4동성당 대성전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회비: 115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 번 기도회
때: 9월18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16일~19일·11월17일~20일·12월1일~4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김대우 신부 / 울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9월22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천주교성령봉사회 하차 / 문의: 010-3242-6868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곳: 10월24일~26일·11월9일~11일(말씀 피정)·11월17일~19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추최) / 대상: 개인(본당 전신자 피정, 구반장 피정)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잠원동성당 성령기도회 / 문의: 010-9253-1132
때, 곳: 매주(화) 19시~21시 / 미사, 안수
9월19일 김현우 신부 9월26일 김정희 수녀

성모송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10월21일(토) 명예목성지(청주교구)
11월18일(토)~19일(일) 명례성지 외(마산교구)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추최, 황성)
성경 완독 10월13일(금)~21일(토),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 010-3340-0201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자체취사) 010-9715-1203

교구별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때: 11월10일~13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12월2일~4일(대구대교구 17곳), 12월11일~14일(제주도·추자도·차귀도)
출발: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에 초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가 1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 하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소박하고 겸손하게 내맡기며 본당에서 주1회 기도 모임을 함께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010-7684-9663(Korea@mothersprayers.org)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회비: 20만원(1부부)
계좌: 신헌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 / 쉬는 신자,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10월21일(토) 14시~22일(일) 17시, 아론의 집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1일~3일·10월7일~9일·10월12일~14일·10월17일~19일·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0월29일~31일·11월3일~5일·11월11일~13일, 연말연시(해님야·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0월2일~4일,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성지순례(추자도성지 포함)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2024년 3월21일~24일, 4월2일~5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12월16일(토)~17일(일), 2024년 1월20일(토)~21일(일)
3박4일 9월21일(목)~24일(일), 10월26일(목)~29일(일)
8박9일 10월6일(금)~14일(토), 11월22일(수)~30일(목)
10월4일(수)~11월12일(일)
40일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2박3일 10월27일~29일, 11월17일~19일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강사: 권민자 수녀
문의: 031)321-9054 예수마음선교수녀회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 문의: 02)727-2472

노들담몬테소리교육(노들담몬테소리학교)
내용: 몬테소리교육 개인지도 / 문의: 010-6645-3114
곳: 노들담수녀회(성북동) / 대상: 생후 18개월부터(영아)

미국가톨릭사립학교 1월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문의: 02)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가을학기 회원모집
때: 9월19일 개강, 매주(화) 14시~16시(13주)
곳: 교육장(인사동) / 다도와 전통 예절 교육
문의: 010-6618-1313, 010-8912-2640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이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전기(주반)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9월20일(수)~10월6일(금)-전형일 10월14일(토)·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27일(월)~12월4일(일)-전형일 12월9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3년 가을 특강
때, 곳: 10월18일~11월8일 매주(수) 13시30분~15시 30분(강의), 12시10분(미사) 4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1층 성당 / 미사 후 간단한 점심 제공
회비: 4회 3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10월18일	국악 연주회 '해금으로 드리는 기도'	정겨운·해금살롱
10월25일	성모 마리아와 다미아노 십자가	김준성 작가
11월1일	현대미술과 찬양 어머니	이동욱 신부
11월8일	현대의 성모 도상	이종환 신부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목요신학강좌 트랙 IV
때: 10월19일~11월23일 매주(목) 19시30분(6강)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녹화강의) / 02)333-9898 한국CLC

1강(10월19일)	회칙 '모든 형제들'로 세상 보기	박동호 신부
2강(10월26일)	관상적 영성과 문명의 전환	조경자 수녀
3강(11월2일)	현대 세계에서 영적 자유	이근상 신부
4강(11월9일)	세상 밖에 구원 없다-사회적 영성	정경일 박사
5강(11월16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가톨릭 시민	김남희 박사
6강(11월23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식별	현재우 박사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0월11일~25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레식기타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 초급반 모집

때: 매주(화) 14시, (수·금) 10시(주1회, 2시간)
곳: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 문의: 02)778-7543
회비: 3개월 12만원(연회비 별도)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하느님 자비와 의탁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9월25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소강당

우리의 모든 감정을 요리하는 '감정식당'

주제: 이서원 교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때: 1차 10월10일(화)·17일(화)·24일(화), 2차 11월7일(화)·14일(화)·21일(화) 14시~16시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 바오로센터(주최)
회비: 차수당 10만원 / 문의(접수): 010-3251-8400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10월21일(토) 13시30분,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 문의: 010-3211-5195 (문자)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이메일 접수

도봉산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때: (일) 9시 미사 / 문의: 02)3491-2326
대상: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파이프오르간 유경험자 환영) / 이메일: cijavus@seoul.catholic.kr
성가 연습: 매주(목) 10시 미사 후·(일) 8시, 특별 연습은 부활 및 성탄·주요행사 준비(장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1차 서류 심사 후 2차 개별 면접(보수는 면접시 협의)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9월21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26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9월22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명동성당 주임)
때, 곳: 9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특강,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9월18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9월25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45-6096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유동철 신부(해외선교봉사자 차장)
때, 곳: 9월25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성바오로수도회 월례미사·나의 기억 치유 여행

1)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베(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2) 기억치유를 통한 새로운 나와의 여행
대상: 자기성장, 행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
강사: 박예진 박사 / 회비: 18만원
때: 10월27일(금)·10월28일(토) 10시~17시30분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미아동) 바오로센터 2층 세미나실 / 문의: 010-2557-1361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교메스심리상담소 / 문의: 010-3201-0520

경험 많고, 상담실력과 신심을 모두 갖춘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찾아드립니다
상담방법: 전화, PC(Zoom), 대면 모두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의수녀회)

까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9월26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목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사회복지사, 간호사 / 인원: 분야별 각 1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명일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사제관 주방 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24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접수 /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문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범죄 청소년 및 수용자, 출소예정자, 봉사자 전반적인 교육 담당 / 이메일: kyodo@catholic.or.kr
서류: 입사지원서(내부 양식), 본당 신자 확인서, 교적 사본 / 9월26일(화) 17시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atholic-correction.co.kr) 모집 공고 참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실례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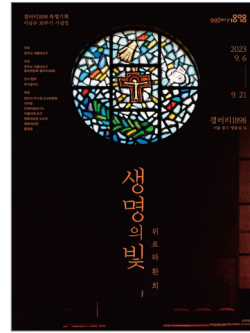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정

상영관: 경기도 고양시 백석CGV, 메가박스 벨라시타 / 상영 일자: 9월 15일-20일 사이 2회 (시간표 추후 확정 예정)
주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문의: 1899-8318 영화제 사무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분의 특별한 의지와 메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한다. 2013년, 착좌하신 이후, 9년간 53개국을 다녔던 교황님 여정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차별받으며 위협받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교황님의 여정은 극단의 갈등으로 치닫는 이 세계에 진정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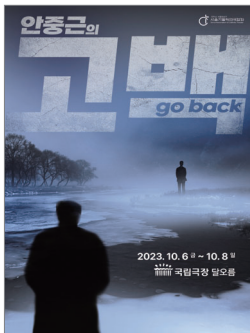


전시

갤러리1898 특별 기획
이남규 30주기 기념전
생명의 빛
위로와 환희

| 문의: 02)727-2336, 7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갤러리1898에서는 2023년 9월 6일(수)~21일(목), 한국 유리화의 선구자 이남규 작가(루카, 1931~1993)의 30주기를 맞아 <생명의 빛' 위로와 환희>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믿음을 빛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했던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위로와 환희의 자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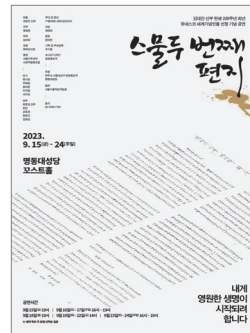


음악극

안중근의 고백

문의: 010-4283-2586
신청: <https://naver.me/5iplyqRB>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 쿼알(QR) 코드 스캔
입장권: S석 3만원, R석 5만원, VIP석 7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1부로 2명 50% 할인 (단체 20명 이상 시인티켓 만원)

전쟁 중에 죽어가는 독립군들에게 세례를 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토마스 안중근의 이야기. 사형 선고 후 세례 집전 신부님이셨던 빌렘 신부께 고해성사를 부탁하며 시작되는 음악극 <고백>이 10월 6일(금) 7시 30분, 10월 7일(토)~8일(주일) 15시·19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있다.



연극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공연
스물두 번째 편지

때: 9월 15일 19시 | 9월 16일-17일 16시·19시
| 9월 18일 19시 | 9월 19일-22일 14시 | 9월 23일-24일 16시·19시
곳: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입장권: 전석 1만원 / 문의: 02)3789-7702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하느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신념과 용기의 인물, 김대건 신부님. 이번 공연에서 신부님의 편지를 따라 걸으며 굳건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으로 펼칠 살아 뛰었던 스물 다섯의 청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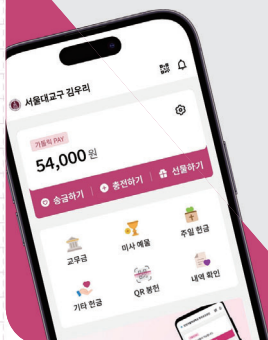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기념
가톨릭페이 머니 지급 이벤트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클릭하여 우리은행 WON뱅킹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 혜택1** 가톨릭페이에서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를 충전 계좌로 등록하면 가톨릭페이 머니 5천원 지급 (선착순 10,000명)
- 혜택2**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가톨릭페이로 5천원 이상 충전 시 가톨릭페이 머니 3만원 추가 지급 (1,000명 추첨)

'가톨릭하상' 앱 이벤트 안내

- 1 기 간 | 9월 18일(월)~10월 22일(주일)
- 2 대 상 | 우리은행 계좌 이용 교우
- 3 참 여 방 법 | ① 이벤트 기간 내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통해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 방문
②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클릭
- 4 경품 지급일 | 2023년 11월 13일 이후 개별 문자 통지 예정



가톨릭하상 다운로드 >>>

iOS용

안드로이드용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2023년 명동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 2023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도운동으로 상징적인 공공장소에서 전 세계 64개국 1,000여 개 도시에서 100만여 명의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종식을 위해 같은 시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간 : 9월 27일(수)~11월 5일(주일) 09:00~21:00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입구

·신청 : 생명위원회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

·문의 : 생명위원회 ☎ 727-2354

◎ 새벽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55세 이하 교우로서 평일 오전 7시 미사 해설 및 독서 봉사 가능한 분

·모집기한 : 9월 17일(주일)까지

·문의 : 단장 ☎ 010-3170-7878 (※반드시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동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우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6404-224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봉사뱅크’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우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활동 : 평일과 주일 상설 고해소 안내

·신청/문의 : 봉사뱅크 ☎ 010-3668-5039

(※문자로 문의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8월 28일 ~ 9월 10일 : 610,000원)

누계 : 4,465,744,413원

한 규 나 :	300,000원	익 명 :	100,000원
김 조 민 :	50,000원	익 명 :	30,000원
김 수 진 :	100,000원	익 명 :	3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명동대성당 선교부 신입부원 모집

예비신자들이 세례 받기 위한 6개월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해줄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성실함을 갖춘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진 25~40세 교우

·활동 : 매월 시작되는 예비신자 교리반 담당 (예비신자 출결 및 교육과정 전반 관리) 및 환영식, 세례식 등

* 교리반 봉사 - 목/토/주일 중 1일 (6개월 고정)

☞ 목요일 오후 7시~9시

☞ 토요일 오후 3시~6시

☞ 주 일 오후 3시~6시

* 시례식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청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조

·기한 : 9월 30일(토)까지

·문의 : 예비신자 교리학교 ☎ 02)3407-3914

※신청서 접수 후 신부님·수녀님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되며, 면담 후에 봉사 여부 최종 결정됩니다.

◎ 명동대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 모집

·모집대상 : 20세~33세(1991년생~2004년생)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분

·모집기간 : 10월 3일(화)까지

·제출서류 : 입당신청서 1부, 교적증명서(오디션 당일 제출)

·오디션 및 면담 : 10월 8일(주일)

☞ 성가 자유곡 1곡, 악보 2부 지참

·지원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명동성당 청년성가대 ELI 단원모집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 상 : 성가 봉사를 희망하는 만 18~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연 습 : ☎ 15시~17시, ☎ 11시~12시

·활 동 :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및 대축일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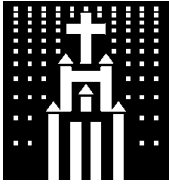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오디션 : 10월 21일(토) 13:3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접 수 :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공지 참조

·문 의 : ☎ 010-3211-5195 (※문자 요망)

◎ 성가책 사용 안내 (대성당 비치용)

대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가책은 교우분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사용하신 후에는 반듯하게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김) 신부
부 주 임 진슬기(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 입당 : 287 | 봉헌 : 221, 219, 216 | 성체 : 158, 163, 497 | 파견 : 285

《 어린이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

4월부터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한 어린이들이 오늘 낮 12시 교중미사 중에 첫영성체를 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 안에 심어진 순수한 믿음이 아름답게 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9월 29일(금) 「추석」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9월 27일(수)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추석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추석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휴무

9월 28일(목)~10월 1일(주일)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본당 사무실은 9월 30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주일)은 정상 근무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10월 예비신자 교리반

10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4년 4월에 거행되며, 10월 8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7:30	교구청 본관 402호	진슬기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토요반	오후4:00	교구청 본관 401호	장 마리로즈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목요반(10월 12일), 토요반(10월 14일)

◎ 장애인 탈시설화 반대 서명 운동

주교회의 요청으로 일괄적인 장애인 탈시설화 반대를 위한 서명을 성당마당 부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III - 박수예 바이올린 리사이틀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 제3회차 두 번째 공연의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는 16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 음반 발매, 2022년 서울시향과의 협연음반 포함 BIS 레이블로 현재 5장의 인터내셔널 음반 발매를 비롯하여 그라모폰 '이달의 음반' 선정 및 '올해의 음반'에 노미네이트되었고, 2022년 <포브스 코리아> '2023파워리더'에 선정되었습니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회에서 울프 발린 사사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으로 국내외 여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리사이틀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일시/장소 : 9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 / 파밀리아 채플

·출연 :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피아니스트 김흥기

·예매 : 전석 20,000원 (인터파크 티켓 판매 중)

☞ 비지정석, 휴식시간 없이 약 60분 공연

·문의 : 주관사 목프로덕션 ☎ 338-3816

※프로그램 및 연주자 약력은 예매사이트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887,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9/4-9/10).....20,450,700
 - 연중 제 23 주일 헌금.....36,517,000
 - 감사헌금 (9/4-9/10).....3,600,000
- 김 모니카 / 김 비비안나 / 김 소피아
김 클라라 / 남 보나 / 박 글라라 / 박 요한
양 스테파노 / 오 젤뚜르다 / 임 사무엘
조 엘리사벳 / 최 안나 / 하 바틸다 / 한 바오로
황 데레사 / 황 마리아로사 / 익명(1)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3545+ 미사)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		